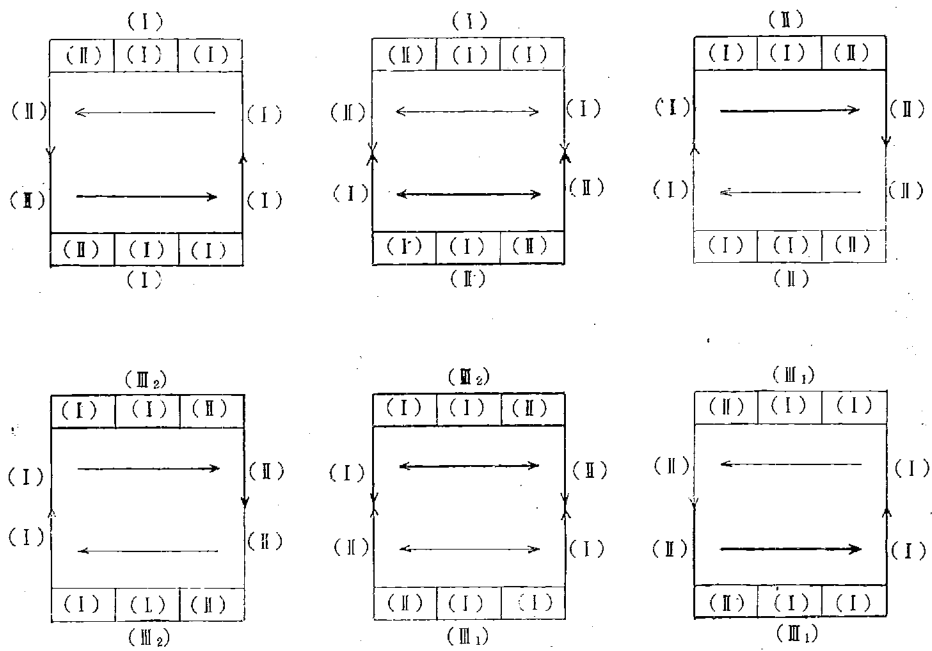
이 부채꼴 그림에 대응되는, 앞으로 作成될 (Ⅰ)/(Ⅱ)/(Ⅲ)적(추상적) **異方向의 共存體**의 **화살표 그림**에서, (Ⅰ) 즉, **단 하나의** 異方向의 화살 표시($\begin{smallmatrix}1\nwarrow & \nearrow 2\\ 2\swarrow & \searrow 1\end{smallmatrix}$) 및 (Ⅱ)/(Ⅲ) 즉, (Ⅰ)에 준하는 **두개의 화살 표시**((Ⅱ) : $\begin{smallmatrix}1\nwarrow & \nearrow 2\\ 3(2)\swarrow & \searrow 3(1)\end{smallmatrix}$ 및 $\begin{smallmatrix}3(2)\nwarrow & \nearrow 3(1)\\ 1\swarrow & \searrow 2\end{smallmatrix}$; (Ⅲ) : $\begin{smallmatrix}3(1)\nwarrow & \nearrow 3(2)\\ 2\swarrow & \searrow 1\end{smallmatrix}$ 및 $\begin{smallmatrix}3(2)\nwarrow & \nearrow 3(1)\\ 1\swarrow & \searrow 2\end{smallmatrix}$)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變形(同一視/混同) 작업을 통하여 얻어진다 ; 우선 (Ⅲ)의 그림 부터 :

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異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의 윗 左/右와 아랫 左/右(앞의 해당 그림 참조)를 잡아서, 그것을 각각, 이 그림이 갖는 두개의 準對角線, 즉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searrow\boldsymbol{\nearrow}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과 下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boldsymbol{\searrow}\nearrow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分析(分類/配置)하여, 그것을 윗 左/右 및 아랫 左/右의, 中央部에다, 양편에 화살이 달린 異方向의 화살표(↔)와, 가는 線(글자)과 굵은 線(글자)를 써서, 配置(分析/分類)한다. 이 變形(同一視/混同)의 分析(分類/配置)에서의 **基準**(出發點/上位)이 되는 **1°/2°/3°적(구체적) 準異方向의 화살표 共存體** $\left((\mathrm{II})\overbrace{(\mathrm{III})(\mathrm{II})(\mathrm{I})}^{(\mathrm{I})}(\mathrm{I})\text{ 등 등}\right)$ 는, 윗 左/右 가운데서, 左의 上 $\left((\mathrm{II})\overbrace{(\mathrm{III})(\mathrm{II})(\mathrm{I})}^{(\mathrm{I})}(\mathrm{I})\right)$ 과, 아랫 左/右 가운데서, 左의 **上** $\left((\mathrm{I})\overbrace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^{(\mathrm{III}_2)}(\mathrm{II})\right)$ 이 된다. 즉 앞의 **1°/2°/3°적 準異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에서 準異方向 對角線 두 개 $\left(\text{上 }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searrow\boldsymbol{\nearrow}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\text{ ; 下 }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boldsymbol{\searrow}\nearrow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\right)$ 중,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searrow\boldsymbol{\nearrow}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\\ \searrow\\ (\mathrm{III}_2)\end{pmatrix}$ 의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\\ \searrow\end{pmatrix}$ 의 上(Ⅰ)과, 下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boldsymbol{\searrow}\nearrow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\\ \boldsymbol{\searrow}\\ (\mathrm{III}_2)\end{pmatrix}$ 의 **上** $\begin{pmatrix}(\mathrm{I})\\ \boldsymbol{\searrow}\end{pmatrix}$ 의 **上**(Ⅰ)이 된다. 그와 반대로, 이 變形(同一視/混同)의 分析(分類/配置)에서의 **準基準**(到着點/下位)이 되는 準異方向의 화살표 共存體 $\left((\mathrm{I})\overbrace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^{(\mathrm{II})}(\mathrm{II})\text{ 등 등}\right)$ 는, 윗 左/右 가운데서, 右의 上 $\left((\mathrm{I})\overbrace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^{(\mathrm{II})}(\mathrm{II})\right)$ 과, 아랫 左/右 가운데서, 右의 上 $\left((\mathrm{II})\overbrace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}^{(\mathrm{III}_1)}(\mathrm{I})\right)$ 이 된다. 즉 앞의 경우와는, 異方向적으로, 準異方向의 對角線, 즉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searrow\boldsymbol{\nearrow} & \\ (\mathrm{III}_2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下 $\begin{pmatrix}(\mathrm{II})\\ \boldsymbol{\nearrow}\\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I})\\ \boldsymbol{\nearrow}\end{pmatrix}$ 의 上(Ⅱ)과, 下 $\begin{pmatrix}(\mathrm{I}) & & (\mathrm{II})\\ & \boldsymbol{\searrow}\nearrow & \\ (\mathrm{III}_3) & &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下 $\begin{pmatrix}(\mathrm{II})\\ \nearrow\\ (\mathrm{III}_1)\end{pmatrix}$ 의 上 $\begin{pmatrix}(\mathrm{II})\\ \nearrow\end{pmatrix}$ 의 上(Ⅱ)이 된다.

요컨대, 準對角(下位)에서 對角(上位)으로의 異方向적 變形(混同/同一視)작업이란, 準對角(下位)을 對角(上位)으로, 異方向적으로 푸는데, 그 注意를 총동원하는 작업이고, 對角(上位)에서 準對角(下位)으로의 變形(混同/同一視)작업이란, 對角(上位)을 準對角(下位)으

로 異方向적으로 푸는 데, 注意를 총동원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.

아래에 표시되는 그림은, 앞의 對角線 표시 그림의, (Ⅲ)(3(1)↖↗3(2) 2↙↘1 ; 3(2)↖↗3(1) 1↙↘2)과, 그것을 대괄호([[ ]] 등 등)로 표시함으로써, 그것과 準對角線 그림(|1↘↗1| 1→2 2→1 등 등)과의, 異方向적 共存을 그린(異方向적으로 變形/同一視/混同한) 부채꼴 그림([[|1↘↗1| 1→2 2→1]] 등 등)에 해당하는 화살표 그림이다. 그리고 이 그림은 앞의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異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과는 異方向의, (Ⅰ°)/(Ⅱ°)/(Ⅲ°)적(추상적) **異方向의 共存體**(=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)의 그림의 테두리 안에서의, (Ⅲ)적(구체적) **準異方向의 共同體**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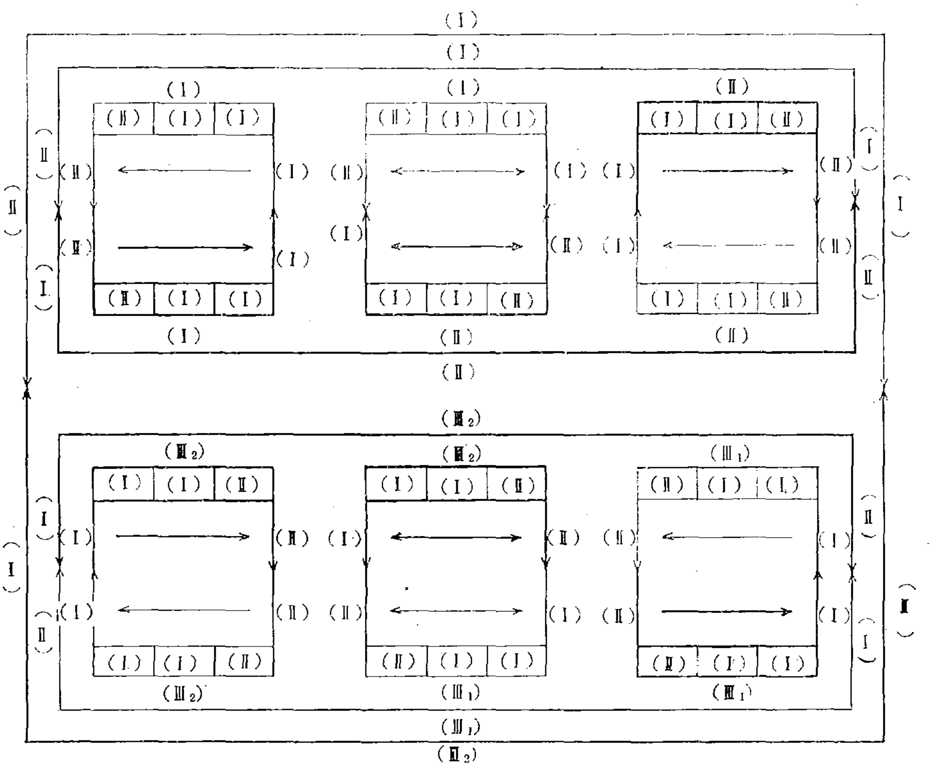


(Ⅲ)적(구체적) 準方向의 共存體

다음 차례는, 이 그림으로 부터, 앞의 對角線 표시 그림의, (Ⅱ)(1↖↗2 3(2)↙↘3(1) ; 3(2)↖↗3(1) 1↙↘2) 및 (Ⅰ)(1↖↗2 2↙↘1)과, 위의 그림과의, 異方向적 共存의 그림(위 **異方史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의 圖式** 참조), 즉 위에 그린 바 있는, 1°/2°3°적(구체적) 準異方向의 共存體와 (Ⅰ)/(Ⅱ)/(Ⅲ)적(추상적) 異方向의 共存體와의, 異方向적 共存에 해당되는, 그림을 作成 완료하는 일이다. 이를 위하여는 이미 위에서 作成된 (Ⅲ)적(추상적) 그림에다가, (Ⅱ)(위와 같은 그림) 및 (Ⅰ)(위와 같은 그림)을, 異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의 分析(分類/配置)을 반영하는 표시를 써서, 표시하면 된다. 즉 위 그림의 위 아래에다, 각각, (Ⅲ)적 對角線적 화살 표시(↔ ; ↔)의 異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分析을 반영하는 異方向적 四角形 표

시(;)를 두르고, ((Ⅱ)(Ⅰ) $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})}{\square}}$ (Ⅰ)(Ⅱ) ; (Ⅰ)(Ⅱ) $\overset{(\mathrm{III})}{\underset{(\mathrm{III})}{\square}}$ (Ⅱ)(Ⅰ)) 와 같이, 표시하면 된다.

마지막으로, (Ⅰ)은 단 하나이므로, 위와 같이 표시된 (Ⅱ)의 외곽에다, (Ⅱ)의 각각의 윗 부분(上位) ((Ⅱ) $\overset{(\mathrm{I})}{\sqcap}$ (Ⅰ) ; (Ⅰ) $\overset{(\mathrm{III})}{\sqcap}$ (Ⅱ))의 異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分析을 반영하는, ((Ⅱ)(Ⅰ) $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I})}{\square}}$ (Ⅰ)(Ⅱ))를 두르면 된다. 이와 같이 作成완료된 그림을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라고 부르고 아래에 표시한다.



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

위 그림을, 숫자 대신에 用語를 써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. 그 用語의 異方向적 配置(分析/分類)는 다음의 原則에 의한 것이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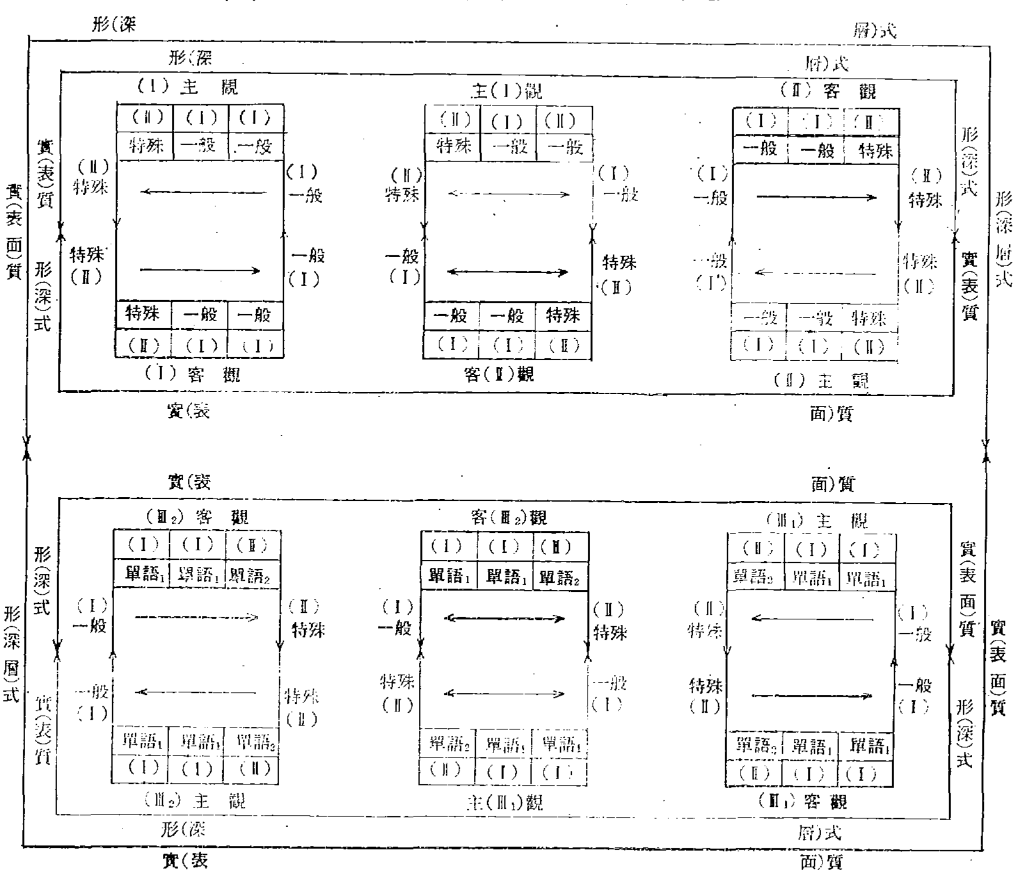
(a) 3°적(가장 구체적) 準異方向의 共存體(위/아래의 양 갓의, 위: $\ov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}{\overleftarrow{\overrightarrow{\qquad}}}}$ $\overset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{\underset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{\overrightarrow{\overleftarrow{\qquad}}}}$; 아래: $\overset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{\underset{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}{\overrightarrow{\overleftarrow{\qquad}}}}$ $\ov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}{\overleftarrow{\overrightarrow{\qquad}}}}$)에서, 위 둘에는 "一般/特殊"라는 用語를, 아래 둘에는 "單語"라는 用語를, 각각, "(Ⅰ)/(Ⅰ)/(Ⅱ)"="一般/一般/特殊", "(Ⅰ)/(Ⅰ)/

(Ⅱ)"="單語₁/單語₁/單語₂", 와 같이 配置(分析/分類)한다 ;

(b) 1°/2°/3°적(구체적) 準異方向의 共存體에서, (3°는 이미 (a)에서 완료됐으므로), "2°"(위/아래의 양 갓의, 위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}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$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I})}{\underset{(\mathrm{II}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$; 아래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II}_2)}{\underset{(\mathrm{III}_2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$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II}_2)}{\underset{(\mathrm{III}_1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$)의 , 위/아래 모두, "主觀/客觀" ; "一般/特殊"라는 用語를, 세로로는 "主觀/客觀"을, 가로로는 "一般/特殊"를, "가는 숫자/굵은 숫자"="主觀/客觀" ; "一般/特殊", 와 같이, 配置(分析/分類)한다 ;

"1°"(중앙부의 위/아래의, 위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}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$; 아래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II}_2)}{\underset{(\mathrm{III}_1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$)에서는, 숫자 표시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2°의 "主觀/客觀" ; "一般/特殊"를, 配置(分析/分類)한다 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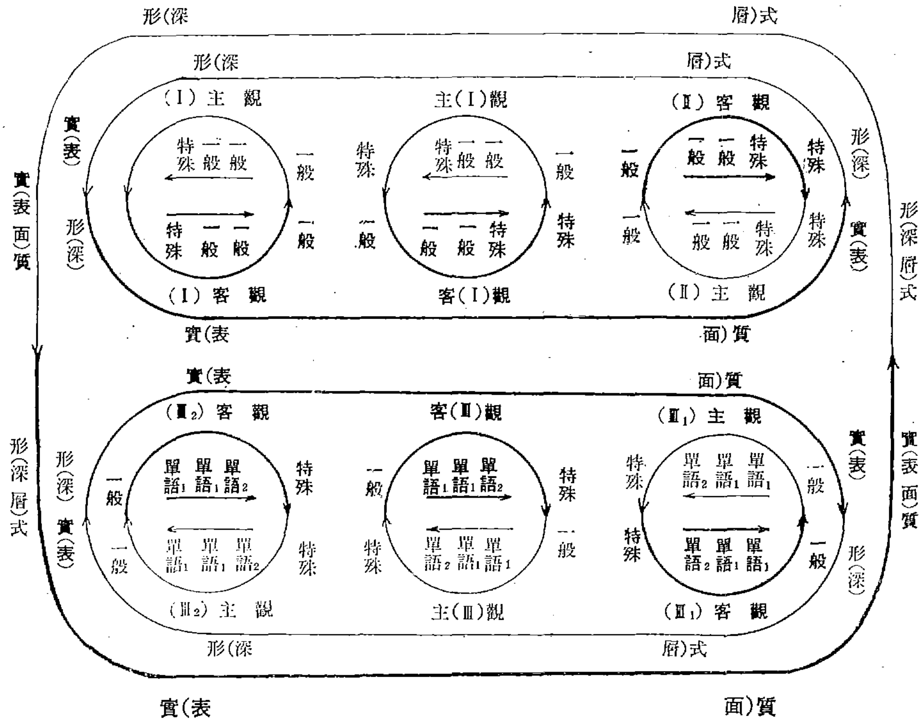
(c) 마지막으로, (Ⅰ)/(Ⅱ)/(Ⅲ)적(추상적) 異方向의 共存體 (안의 위/아래 외곽과 밖의 외곽, 즉, 위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}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$; 아래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II}_2)}{\underset{(\mathrm{III}_1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$; 밖 : $\begin{smallmatrix}(\mathrm{II})\\(\mathrm{I})\end{smallmatrix}\overset{(\mathrm{I})}{\underset{(\mathrm{III}_2)}{\square}}\begin{smallmatrix}(\mathrm{I})\\(\mathrm{II})\end{smallmatrix}$)는, 위 "1°"에서의 配



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

置(分析/分類)에 준하여, 그 숫자 표시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"(Ⅰ) 및 (Ⅲ₁)/(Ⅱ) 및 (Ⅲ₂)" = "形式(深層)/實質(表面)", 과 같이 配置(分析/分類)한다.

위 그림의 사각형(□)의 모양을 원(○)과 타원형(⬭)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:



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의 圖式

(Ⅱ) 다음으로 남은 일은, 위에서 완료된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와 대립되는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를 파악하고 그 그림을 作成하는 일이다.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, **等方向**이란, 力點을 둔(置重한) 것과(을) 力點을 안 둔 것(置重하지 않은 것)과를(으로) 同一視(混同/變形)하는 행위에 있어서, 그 同一視(混同/變形)의 方向이, 다른 두 쪽에 모두 力點을 두는 **異方向**이 아니라, 같은 한쪽에만 力點을 둔다(置重한다)는 의미에서의, **等方向**이다. 따라서 그 **力點(置重)의 장소는 단 하나이다.** 즉 단 하나의 장소를 향하여 모두가 모이기 때문에, 거기에는 異方向이 없다. 그러므로 이 한 군데를 향하여 **모이는 모습**이, 等方向의 그림에 반영되어야 한다. 그리하여 즉각적으로, 異方向의 準對角線(등 등)과 대립되는, 等方向의 準對角線(등 등)을 그리고, 異方向의 完全한 對角線( )과 대립되는 等方向의 完全한 對角線(=脫對角線)( )을, 얻는다. 이 그림의 특징은 한마디로 **異方向性의 포기/脫皮**라고 말할 수 있다. 이 **異方**

向性의 포기/脫皮는, 바꿔 말하면 원래가 **異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 행위를**, **等方向적으로 同一視(混同/變形)한 행위라고** 말할 수 있다.

그 逆의 순서, 즉 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행위를 異方向적으로 同一視(混同/變形)한 것이 곧 異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. 왜냐하면, **統一**이란 관점에서 볼 때, 等方向이 지향하는 **統一**이란, 等方向적으로 여러번 무한히 반복되는 統一인 까닭에, 그것은 統一의 성격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단 한번의 有限한 統一로서의 異方向적 統一만이, 統一의 유일한 指導主體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므로, 異方向적 統一과 等方向적 統一을, **統一의 共存體**라고 할 때, 이 **共存體**는, 그중의 하나 즉 等方向적 統一을 포기/脫皮함을 전제로 한, 그러한 **統一의 共存體**라고 말할 수 있다.

그러면 等方向적 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swarrow 1|\\ 1\to 2 & 2\lef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을 異方向적 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, 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라고 할 때, 그것은 구체적으로, 그림상으로,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. 그것은 곧, 앞의 異方向의 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, 최하위의(=가장 구체적) 分類(分析), 즉 3°: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\\ 1\to 2\end{smallmatrix}\right)$;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\nearrow 1\\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\nearrow 1\\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를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\\ 1\to 2\end{smallmatrix}\right)$으로 부터 떼어서, 즉 그 **異方向적 共存(連續)을 切斷**해서, **等方向적으로 同一視(混同/變形)**한다는 뜻이 된다. 이것은, 앞에서, 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\nwarrow & \nearrow 2\\ 2\swarrow & \se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을 얻는데 있어서, 異方向의 準對角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最上位의(=가장 추상적) 分類(分析), 즉 1°: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1\searrow & \nearrow 1\\ \multicolumn{2}{c}{22}\end{smallmatrix}\right)$; 下(1→2·2→1)의, 共存(連續) 즉 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, **異方向적 共存(連續)을 그대로 유지**하면서, 그에 도달하는 것과 대립된다. 이 두 대립되는 異方向적/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의 절차를 간추리면:

a) 異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의 경우와 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의 경우에 있어서, **同一視(混同/變形)의 土臺/기초가 되는 그림(共存體/連續體)**은 異方向/等方向 각각의 同一視(混同/變形) 작업을 함에, **손쉽고 편리한** (異方向의 경우에는 보다 上位의 異方向과 異方向적으로 直結될 수 있고, 그와 對立되는 等方向의 경우에는 上位의 等方向과 直結될 수 있는), **그림**이다. 즉, 위의 예에서, 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\nwarrow & \nearrow 2\\ 2\swarrow & \se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을 얻기 위한 異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작업의 **土臺/기초가 되는 그림**은 그 작업을 함에, **가장 손쉽고 편리한** (보다 上位의 異方向性과, 異方向적으로 直結될 수 있는) **그림**, 즉 準對角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最上位의(=가장 추상적) 分析(分類)인 1°의 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이다. 또 위의 예에서, 完全한 等方向의 脫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\searrow & 2 & \swarrow 1\\ 1\nearrow & 2 & \nw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을 얻기위한 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작업의 **土臺/기초가 되는 그림은**, 그 작업을 함에 **가장 손쉽고 편리한** (異方向性의 上位: $\begin{smallmatrix}1\nwarrow & \nearrow 2\\ 2\swarrow & \searrow 1\end{smallmatrix}$와 대립되는, 等方向性의 上位: $\begin{smallmatrix}1\searrow & 2 & \swarrow 1\\ 1\nearrow & 2 & \nwarrow 1\end{smallmatrix}$와, 等方向적으로 直結될 수 있는) **그림**. 즉 準對角$\left(\begin{smallmatrix}|1\searrow & \nearrow 1|\\ 1\to 2 &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最下位의(=가장 구체적) 分析(分類)인 3°의 $\left(\begin{smallmatrix}\nearrow 1|\\ 2\to 1\end{smallmatrix}\right.$이다;

b) 異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의 **土臺/기초**는, 上位에 力點을 둔(置重한) 반면에, 等方向적 同一視(混同/變形)의 **土臺/기초**는 下位에 力點을 둔(置重한), 그러한 성격을 지닌 **土**

臺/기초이다. 따라서, 異方向적 **土臺**/기초는, 보다 上位의 異方向을 指向하면서, 그 上位에 대하여, 下位로서 남는, 그러한 **土臺**/기초임에 반하여, 等方向적 **土臺**/기초는, 異方向적 下位가 下位로서 남을 수 없이, 그것을 等方向적 上位로 잡는 그러한 성격을 띈 **土臺**/기초이다. 하나가 下位를 下位로서 **認定**하는 **土臺**/기초라면, 다른 하나는 下位를 上位로서 **主張**하는 **土臺**/기초이다. 이러한 相反되는 성격의 **土臺**/기초가 **가리키는 바에 따라서** 作成된 것이, 異方向의 경우에서는, 이미 앞에서 제시된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의 그림이고, 等方向의 경우에서는, 앞에서 異方向과의 비교에서 즉시 작성된, **等方向적 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라고 부르게 될 그림이다.

c) 위 a)와 b)로 부터, 異方向의 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ne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세 가지의 分類(分析) 즉 : 1°) 上$({}^{1}\searrow_{22}\nearrow^{1})$과 下$(1\rightarrow 22\rightarrow 1)$, 즉 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ne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; 2°) 上$({}^{1}\searrow_{22}\nearrow^{1})$ 및 下$(1\rightarrow 22\rightarrow 1)$; 3°)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{}^{1}\searrow{}^{2} \\ 1\righ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 및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{}^{2}\nearrow{}^{1} \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, ――이 세 가지의 分類(分析)은, 그와 대립되게, 等方向의 準脫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 3_2\righ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의 세 가지의 分類(分析), 즉 : 1°) 上$({}^{1}\searrow_{3_1 3_2}\swarrow^{2})$과 下$(1\rightarrow 3_1\cdot 3_2\leftarrow 2)$, 즉 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 3_2\lef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; 2°) 上$({}^{1}\searrow_{3_1 3_2}\swarrow^{2})$ 및 下$(1\rightarrow 3_1\cdot 3_2\leftarrow 2)$; 3°)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{}^{1}\searrow \\ 1\rightarrow 3_1\end{smallmatrix}\right)$ 및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\swarrow{}^{2} \\ 3_2\lef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, 로서 파악된다,

앞에서 이미 행한 바, **異方向의 二重運動 連續體**로서의 **對角線**의 세 가지 分類(分析/配置/共存)의 순서에 따라서, 그와 대립되는 **等方向의 脫二重運動 連續體**로서의 **脫對角線**의 세 가지 分類(分析/配置/共存)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:

3°적(가장 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

$$\begin{matrix}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\ 3_2\leftarrow 2\end{smallmatrix} & \qquad & \begin{smallmatrix}|^{2}\searrow\ \swarrow^{1}| \\ 2\rightarrow 3_2\cdot 3_1\leftarrow 1\end{smallmatrix} \\ \\ \begin{smallmatrix}|^{3_1}\searrow\ \swarrow^{3_2}| \\ 3_1\rightarrow 1\cdot 2\leftarrow 3_2\end{smallmatrix} & \qquad & \begin{smallmatrix}|^{3_2}\searrow\ \swarrow^{3_1}| \\ 3_2\rightarrow 2\cdot 1\leftarrow 3_1\end{smallmatrix}\end{matrix}$$

앞의 **3°적(가장 구체적) 準異方向의 共存體**와 대립되는, 이 **3°적(가장 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**는, 그 **土臺**/기초를, 異方向적 下位가 下位로 남을 수 없이, 等方向적 上位로 잡은, 그러한 성격의 **土臺**/기초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작성된다. 즉, 異方向의 準對角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ne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중 가장 구체적인 3° 즉 : 上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 \\ 1\righ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;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\nearrow^{1}| \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에서, 下$\left(\begin{smallmatrix}\nearrow^{1}| \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를, 異方向적 下로서가 아니라, 等方向적 上의 土臺/기초로서 잡고, 그와 같이 잡은 土臺/기초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異方向의 完全한 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^{\nwarrow}\ \ {}^{\nearrow}2 \\ 2_{\swarrow}\ \ {}_{\searrow}1\end{smallmatrix}\right)$과 대립되는, 等方向의 (가늘고 굵은 구별이 없는) 完全한 脫對角線 : $\left(\begin{smallmatrix}1\searrow\ {}^{3}_{3}\ \swarrow 2 \\ 1\nearrow\ \ \ \nw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과 不完全한 脫準對角線 : 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 3_2\lef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을 얻는다. 異方向의 完全한 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^{\nwarrow}\ \ {}^{\nearrow}2 \\ 2_{\swarrow}\ \ {}_{\searrow}1\end{smallmatrix}\right)$의 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ne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rightarrow 1\end{smallmatrix}\right)$으로의 分類(分析/配置/變形)의 경우와 대립되는, 等方向의 完全한 脫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1\searrow\ {}^{3_1}_{3_3}\ \swarrow 2 \\ 1\nearrow\ \ \ \nw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을 脫準對角線$\left(\begin{smallmatrix}|^{1}\searrow\ 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 3_2\leftarrow 2\end{smallmatrix}\right)$으로 分析(分類/配置/變形)한 것이, 위의 (가늘고/굵은 구별이 없는) 그림이다,

역시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異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과 대립되게, 남은 두개의, 準脫對角線 그림의 配置(分析/分類)를 나타내기 위하여, 가늘고 굵은 구별 없이, 굵은 대 괄호(【 】) 표시를 써서, 나타낸 것이, 아래의 1°/2°/3°적 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이다 :

1°/2°/3°적(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

$$\left(\left(\begin{array}{c} |^{1}\searrow\swarrow^{2}| \\ 1\rightarrow 3_1\cdot 3_2\leftrightarrow 2 \end{array}\right)\right) \qquad \left(\left(\begin{array}{c} |^{2}\searrow\swarrow^{1}| \\ 2\rightarrow 3_2\cdot 3_1\leftrightarrow 1 \end{array}\right)\right)$$

$$\left(\left(\begin{array}{c} |^{3_1}\searrow\swarrow^{3_2}| \\ 3_1\rightarrow 1\cdot 2\leftarrow 3_2 \end{array}\right)\right) \qquad \left(\left(\begin{array}{c} |^{3_2}\searrow\swarrow^{3_1}| \\ 3_2\rightarrow 2\cdot 1\leftarrow 3_1 \end{array}\right)\right)$$

異方向의 準對角線의 그림($\begin{array}{c} |^{1}\searrow\ne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rightarrow 1 \end{array}$ 등등)에 대응하는 화살표 그림 $\left(\begin{array}{c} 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 \\ \xleftarrow{\qquad\qquad} \\ \xrightarrow{\qquad\qquad} \\ 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}) \end{array} \text{등 등}\right)$ 과 대립되는,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은, 가늘고 굵은 구별 없이, 굵은 線으로 統一하여,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. 이것은 위의 3°적(가장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각각의 부채꼴($\begin{array}{c} |^{1}\searrow\swarrow^{1}| \\ 1\rightarrow 2\ \ 2\leftarrow 1 \end{array}$)을, ($\begin{array}{c} |^{1}\searrow \\ 1\rightarrow 2 \end{array}$)와 ($\begin{array}{c} \swarrow^{1}| \\ 2\leftarrow 1 \end{array}$)의 等方向적 共存(配置/分析/分類)으로 잡아,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그 각각을, 等方向의, 굵은 線으로 통일된 화살표 (→와 →)를 써서, 표시한 것이다 :

3°적(가장 구체적) 準等方向적 共存體

$$\overset{(\mathrm{I})(\mathrm{II})(\mathrm{III}_1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 \qquad \ov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II}_2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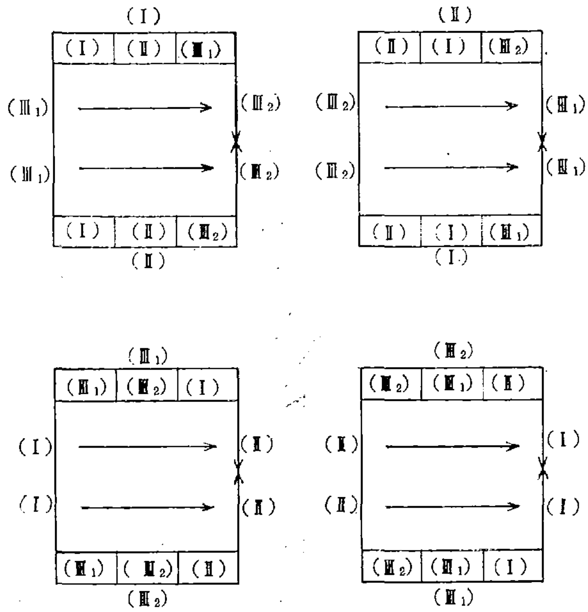
$$\underset{(\mathrm{I})(\mathrm{II})(\mathrm{III}_2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 \qquad \underset{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II}_2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$$

$$\overset{(\mathrm{III}_1)(\mathrm{III}_2)(\mathrm{I}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 \qquad \overset{(\mathrm{III}_2)(\mathrm{III}_1)(\mathrm{II}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$$

$$\underset{(\mathrm{III}_1)(\mathrm{III}_2)(\mathrm{II}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 \qquad \underset{(\mathrm{III}_2)(\mathrm{III}_1)(\mathrm{I})}{\xrightarrow{\qquad\qquad\qquad}}$$

다음은, 3°보다 더 추상적인 1°/2°와 위 3°와의 等方向적 共存(配置/分類/分析)을 나타낸 그림이다. 이 그림은 앞의 부채꼴의 1°/2/3°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의 그림**에 대응되는 화살표 그림으로서,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異方向의 共存體**의 화살표 그림과 대립되므로, 그림의 작성도 대립되도록 작성하면 된다. 즉, 3°보다 추상적인 1°/2°적 等方向의 共存(配置/分析/分類)을 나타내기 위하여, 위 3°적 **等方向의 共存體**의 각각 $\left(\begin{array}{c} 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 \\ \xrightarrow{\qquad\qquad} \\ \xrightarrow{\qquad\qquad} \\ (\mathrm{I})(\mathrm{I})(\mathrm{II}) \end{array} \text{등 등}\right)$ 을, 일차적(추상적)으로는, 부채꼴 그림의 1°적 分析(分類) 즉 上(($^{1}\searrow_{22}\swarrow^{1}$))과 下($1\rightarrow 2\cdot 2\leftarrow 1$)로 잡고, 이차적(구체적)으로는, 2°적 分析(分類) 즉 上 ($^{1}\searrow_{22}\swarrow^{1}$)의 上($^{1}\searrow_{2}$)과 下($_{2}\swarrow^{1}$), 下($1\rightarrow 2\cdot 2\leftarrow 1$)의 上($1\rightarrow 2$)과 下($2\leftarrow 1$)로 잡아서, 그것을, 위의 3°적 **等方向의 共存體의** 화살

표 그림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分析(分類/配置)한 것이, 다음의 1°/2°/3°적(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의 그림이다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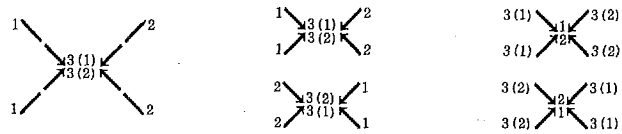


1/2/°3°적(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

이 그림은 부체꼴 그림의 외곽의 대괄호(【 】)를, 안의 準脫對角($\substack{|^1\searrow\swarrow^1| \\ 1\to2\ 2\leftarrow1}$)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그린 것에 대응되는, 화살표의 그림이다. 이로써, 等方向적 準脫對角($\substack{|^1\searrow\swarrow^1| \\ 1\to2\ 2\leftarrow1}$)의 配置(分析/分類)작업은 완료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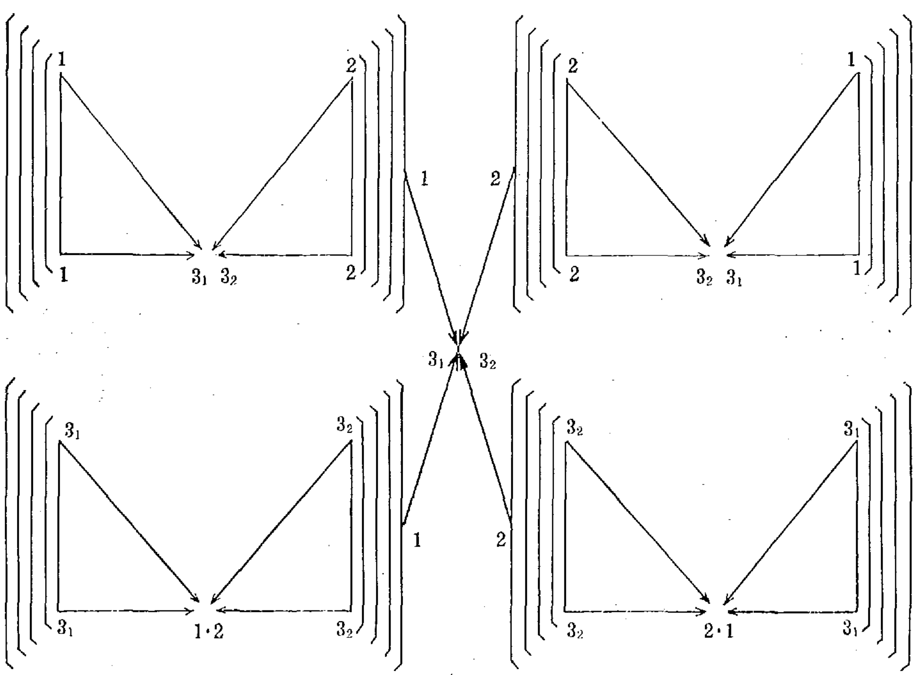
다음은, 단 하나의 異方向의 對角線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2\swarrow\searrow1}$)과 대립되는, 等方向의 完全한 脫對角線($\substack{1\searrow3(1)\swarrow2 \\ 1\nearrow3(2)\nwarrow2}$)을, 그 테두리 안에서, 準脫對角線과는 구별되는/等方向의, 脫對角線으로 푼 그림이다. 이 그림의 作成은, 異方向의 경우와는 대립되게,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: 異方向의 단 하나의 對角線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2\swarrow\searrow1}$)을, 準對角線적으로 두개로 풀고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2\swarrow\searrow1}$; $\substack{2\nwarrow\nearrow1 \\ 1\swarrow\searrow2}$), 그것을 準對角線($\substack{|^1\searrow\nearrow^1| \\ 1\to2\ 2\to1}$)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(Ⅰ) : 上/下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2\swarrow\searrow1}$), (Ⅱ) : 上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3(2)\swarrow\searrow3(1)}$) ; 下($\substack{3(2)\nwarrow\nearrow3(1) \\ 1\swarrow\searrow2}$), (Ⅲ) : 上($\substack{1\nwarrow\nearrow2 \\ 3(2)\swarrow\searrow3(1)}$) ; 下($\substack{3(2)\nwarrow\nearrow3(1) \\ 1\swarrow\searrow2}$)와 같이 分析(分類)한 것과는 대립되게, 等方向의 完全한 脫對角線($\substack{1\searrow3(1)\swarrow2 \\ 1\nearrow3(2)\nwarrow2}$)은, 우선 그것을 準脫對角線적으로 두개로 풀고($\substack{1\searrow \\ 1\nearrow}3(1)$; $3(2)\substack{\swarrow2 \\ \nwarrow2}$), 그것을 準脫對角線($\substack{|^1\searrow\swarrow^1| \\ 1\to2\ 2\leftarrow1}$)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(Ⅰ) : 上/下($\substack{1\searrow3(1)\swarrow2 \\ 1\nearrow3(2)\nwarrow2}$), (Ⅱ) : 上($\substack{1\searrow3(1)\swarrow2 \\ 1\nearrow3(2)\nwarrow2}$) ; 下($\substack{2\searrow3(2)\swarrow1 \\ 2\nearrow3(1)\nwarrow1}$), (Ⅲ) : 上($\substack{3(1)\searrow1\swarrow3(2) \\ 3\nearrow2\nwarrow3}$) ; 下($\substack{3(2)\searrow2\swarrow3(1) \\ 3(2)\nearrow1\nwarrow3(1)}$)과 같이 分析(分類)한 것이다 :

(Ⅰ)　　　　　(Ⅱ)　　　　　(Ⅲ)



이 세 가지 分類(分析)는, 위에서 본 準脫對角線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와 **等方向적인** 分類(分析)이다.

異方向적 準對角線(|1↘ ↗1| 1→2・2→1)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와, 異方向적 對角線(1↖ ↗2 / 2↙ ↘1)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의, 共存體(連續體)로서의,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의 부채꼴 그림과 대립되는, 等方向적 準脫對角線(|1↘ ↙2| 1→$3_1 3_2$←2)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와, 等方向적 脫對角線(1↘ 3_1 3_2 ↙2 / 1↗ ↖2)의 세 가지 分類(分析)의, 共存體(連續體)로서의,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의 부채꼴 그림은 아래와 같다. 異方向의 그림과는 대립되게, 굵고/가는 구별이 있는 異方向의 그림과 대립되는, 모두 굵은 대괄호(【 】)를, 準脫對角線(|1↘ 3_1 3_2 ↙2| 1→ ←2)의 分類(分析)의 대괄호(【 】)의 외곽에다 표시하고, 이것을 脫對角線(1↘ 3_1 3_2 ↙2 / 1↗ ↖2)으로 連結표시한 것이다:



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

이 부채꼴 그림에 대응되는 앞으로 作成될 (Ⅰ)/(Ⅱ)/(Ⅲ)적(추상적) **等方向의 共存體**의, **화살표 그림**중에서 가장 下位의(구체적) (Ⅲ)(3(1)↘1↙3(2) / 3(1)↗2↖3(2) ; 3(2)↘2↙3(1) / 3(2)↗1↖3(1))의 화살표 그림은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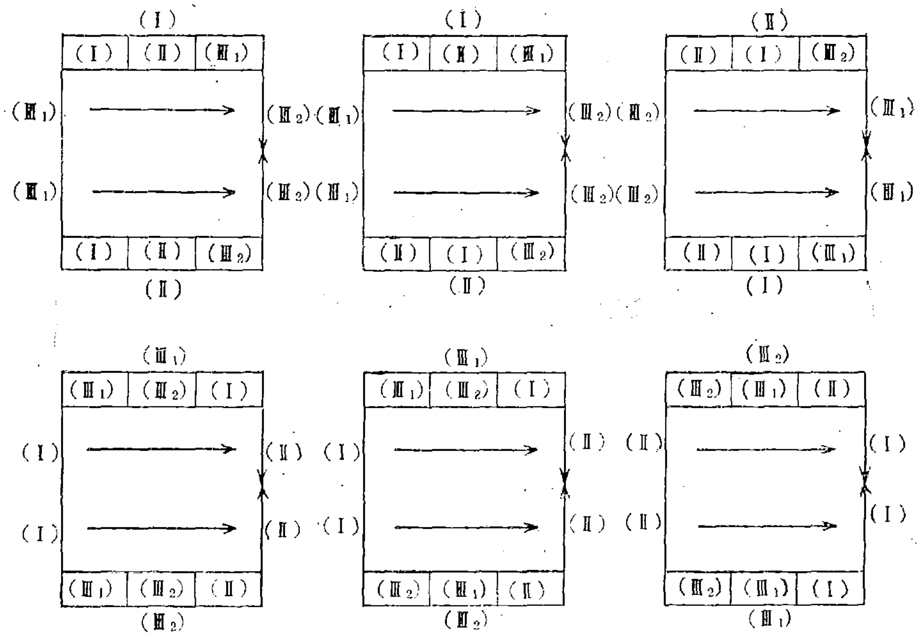
異方向적 (Ⅲ)($\begin{smallmatrix} 3(1)\nwarrow & \nearrow 3(2) \\ 2\swarrow & \searrow 1 \end{smallmatrix}$; $\begin{smallmatrix} 3(2)\nwarrow & \nearrow 3(1) \\ 1\swarrow & \searrow 2 \end{smallmatrix}$)의 화살표 그림과는 대립되게, 다음과 같은 變形(同一視/混同) 작업을 통하여 얻어진다:

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의 윗 左/右와 아랫 左/右(앞 해당 그림 참조)를 잡아서, 그것을 각각, 이 그림이 갖는 두개의 準脫對角線, 즉 **上**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I}) \\ (\mathrm{III}_1) & (\mathrm{III}_2) \end{smallmatrix}$)과 下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}) \\ (\mathrm{III}_2) & (\mathrm{III}_1) \end{smallmatrix}$)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分析(分類/配置)하여, 그것을 윗 左/右 및 아랫 左/右의, 中央部에다, 오른 쪽에 화살이 달린 等方向의 화살표(⇉)를 가늘고/굵은 구별 없이 굵게 統一하여, 配置(分析/分類)한다. 이 中央部의 配置(分析/分類)에서, 그 基準(上位/出發點)이 되는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화살표 共存體**((III_1)$\underrightarrow{\overset{(\mathrm{I})}{\overline{\lceil(\mathrm{I})(\mathrm{II})(\mathrm{III}_1)\downarrow}}}$($\mathrm{III}_2$) 등등)는, 윗 左/右 가운데서, 左의 **上**($(\mathrm{III}_1)\overset{(\mathrm{I})}{\overline{\lceil(\mathrm{I})(\mathrm{II})(\mathrm{III}_1)\downarrow}}(\mathrm{III}_2)$)과, 아랫 左/右 가운데서, 左의 **上**($(\mathrm{I})\overset{(\mathrm{III}_1)}{\overline{\lceil(\mathrm{III}_1)(\mathrm{III}_2)(\mathrm{I})\downarrow}}(\mathrm{II})$)이 된다. 즉, 앞의 1°/2°/3°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화살표 共存體**의 그림에서, 準等方向의 그림 두개(**上**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I}) \\ (\mathrm{III}_1) & (\mathrm{III}_2) \end{smallmatrix}$); 下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}) \\ (\mathrm{III}_2) & (\mathrm{III}_1) \end{smallmatrix}$)) 중, **上**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I}) \\ (\mathrm{III}_1) & (\mathrm{III}_2) \end{smallmatrix}$)의 **上**(($\mathrm{I}$)$\searrow$)의 **上**($\mathrm{I}$)과, 下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}) \\ (\mathrm{III}_2) & (\mathrm{III}_1) \end{smallmatrix}$)의 **上**($\begin{smallmatrix} & \swarrow(\mathrm{I}) \\ (\mathrm{III}_1) & \end{smallmatrix}$)의 **上**($\swarrow$($\mathrm{I}$))의 **上**($\mathrm{I}$)이 된다. 그와 반대로, 中央部의 配置(分析/分類)에서, 그 準基準(下位/到着點)이 되는 **準等方向의 화살표 共存體**($(\mathrm{III}_2)\overset{(\mathrm{II})}{\overline{\lceil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II}_2)\downarrow}}(\mathrm{III}_1)$ 등등)는, 윗 左/右 가운데서, 右의 **上**($(\mathrm{III}_2)\overset{(\mathrm{II})}{\overline{\lceil(\mathrm{II})(\mathrm{I})(\mathrm{III}_2)\downarrow}}(\mathrm{III}_1)$)과, 아랫 左/右 가운데서, 右의 **上**($(\mathrm{II})\overset{(\mathrm{III}_2)}{\overline{\lceil(\mathrm{III}_2)(\mathrm{III}_1)(\mathrm{II})\downarrow}}$)이 된다. 즉 앞의 경우와 역시 等方向적으로 準等方向의 對角線, 즉 **上**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I}) \\ (\mathrm{III}_1) & (\mathrm{III}_2) \end{smallmatrix}$)의 下($\begin{smallmatrix} & \swarrow(\mathrm{II}) \\ (\mathrm{III}_2) & \end{smallmatrix}$)의 **上**($\swarrow$($\mathrm{II}$))의 **上**($\mathrm{II}$)과, 下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I})\searrow & \swarrow(\mathrm{I}) \\ (\mathrm{III}_2) & (\mathrm{III}_1) \end{smallmatrix}$)의 下($\begin{smallmatrix} (\mathrm{II})\searrow & \\ & (\mathrm{III}_2) \end{smallmatrix}$)의 **上**(($\mathrm{II}$)$\searrow$)의 **上**($\mathrm{II}$)이 된다.

요컨데, 準脫對角(下位)에서 脫對角(上位)으로의 等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작업이란, 準脫對角(下位)을 脫對角(上位)으로, 等方向적으로 푸는 데 그 注意를 총동원하는 작업이고, 脫對角(上位)에서 準脫對角(下位)으로의 變形(混同/同一視)작업이란, 脫對角(上位)을 準脫對角(下位)으로, 等方向적으로 푸는 데, 注意를 총집중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. 이점에 있어서, 等方向의 變形(同一視/混同)작업은, 異方向의 變形(同一視/混同)작업과 대립된다.

아래에, 위에서 설명된 **等方向의 脫對角적 共存體**의 그림을 제시한다. 이 그림은 이미 제시한 부채꼴의 (Ⅰ/Ⅱ/Ⅲ적)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의 그림의 테두리에 속하는, (Ⅲ)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(p. 136 그림 참조).

아래에, 위의 (Ⅲ)적(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의 그림과, **等方向적 脫對角線**: (Ⅰ)($\begin{smallmatrix} 1\searrow & 3(1) & \swarrow 2 \\ 1\nearrow & 3(2) & \nwarrow 2 \end{smallmatrix}$) 및 (Ⅱ) 上($\begin{smallmatrix} 1\searrow & 3(1) & \swarrow 2 \\ 1\nearrow & 3(2) & \nwarrow 2 \end{smallmatrix}$; 下($\begin{smallmatrix} 2\searrow & 3(2) & \swarrow 1 \\ 2\nearrow & 3(1) & \nwarrow 1 \end{smallmatrix}$), 와의 **等方向적 共存**의 그림, 즉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의 그림을 제시한다. 이는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의 그림과 대립된다(p. 137 그림 참조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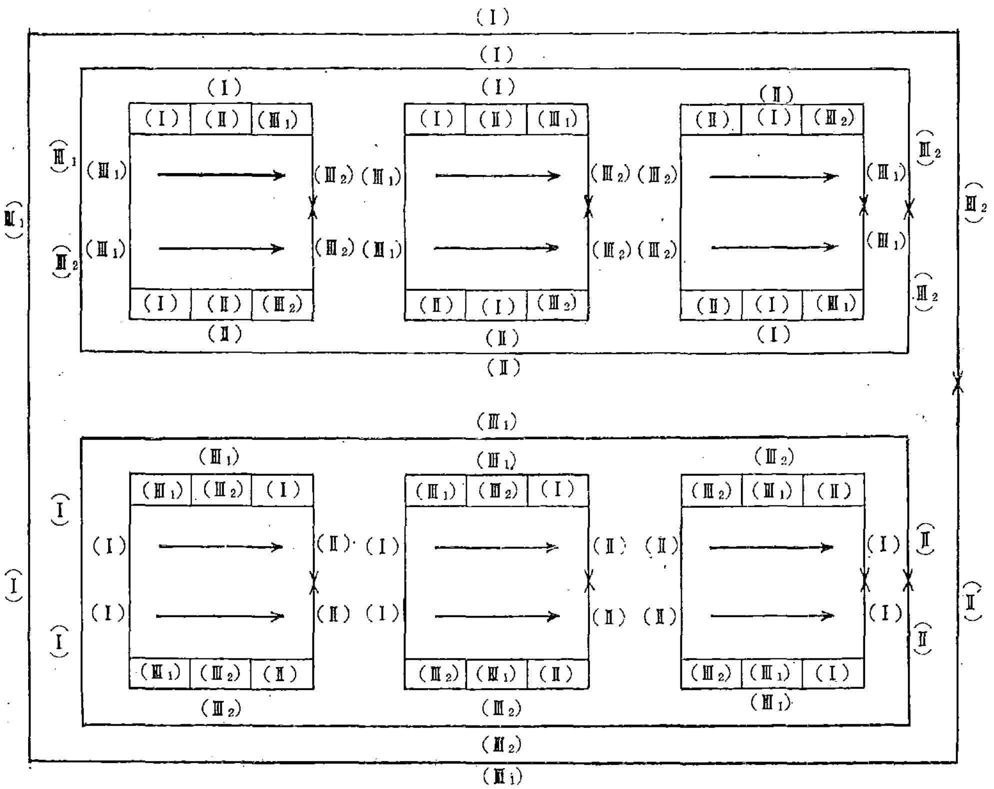
(Ⅲ)적(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

그림의 작성은 異方向의 경우와 대립되게, 等方向적으로 작성한다. 즉 위 그림의 위/아래에다, 각각, (Ⅲ)적 **脫對角線적 화살표시(⇉) 및** 숫자표시의 等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分析을 반영하는 (⇅)을 둘르고, (**上**: (Ⅲ₁)(Ⅲ₁) (Ⅰ) ⇅ (Ⅱ) (Ⅲ₂)(Ⅲ₂); **下**: (Ⅰ)(Ⅰ) (Ⅲ₁) ⇅ (Ⅲ₂) (Ⅱ)(Ⅱ))와 같이 표시한다.

끝으로, (Ⅰ)은, 위와 같이 표시된 (Ⅱ)의 외곽에다, (Ⅱ)의 각각의 윗 부분(上位) ((Ⅲ₁) (Ⅰ) ↓ (Ⅲ₂); Ⅰ (Ⅲ₁) ↓ Ⅱ)의, **等方向적 變形(同一視/混同)分析을** 반영하는, 단 하나의 (Ⅲ₁ Ⅰ (Ⅰ) (Ⅲ₂) Ⅲ₂ Ⅱ) 를, 둘르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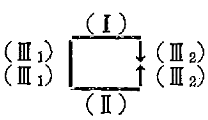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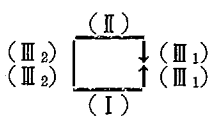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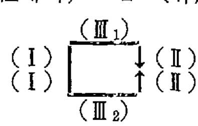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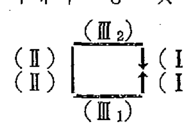
위 그림을, 숫자 대신에 用語를 써서, **異方向의 경우와는 대립되게**, 等方向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. 그 用語의 等方向적 配置(分析/分類)는 다음의 原則에 의한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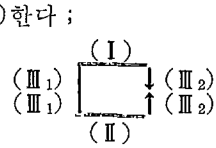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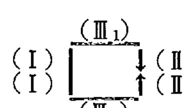
a) 3°적(가장 구체적) **準等方向의 共存體**(위/아래의 양 갓의, 위: (Ⅰ)(Ⅱ)(Ⅲ₁) ⇉ (Ⅰ)(Ⅱ)(Ⅲ₂) (Ⅱ)(Ⅰ)(Ⅲ₂) ⇉ (Ⅱ)(Ⅰ)(Ⅲ₁); 아래: (Ⅲ₁)(Ⅲ₂)(Ⅰ) ⇉ (Ⅲ₁)(Ⅲ₂)(Ⅱ) (Ⅲ₂)(Ⅲ₁)(Ⅱ) ⇉ (Ⅲ₂)(Ⅲ₁)(Ⅰ))에서, 위/아래에 모두 **"文章/單語"** 라는 用語를, "(Ⅰ)/(Ⅱ)"="文章₁/文章₂", "(Ⅲ₁)/(Ⅲ₂)"="單語₁/單語₂"라는 原則에서, 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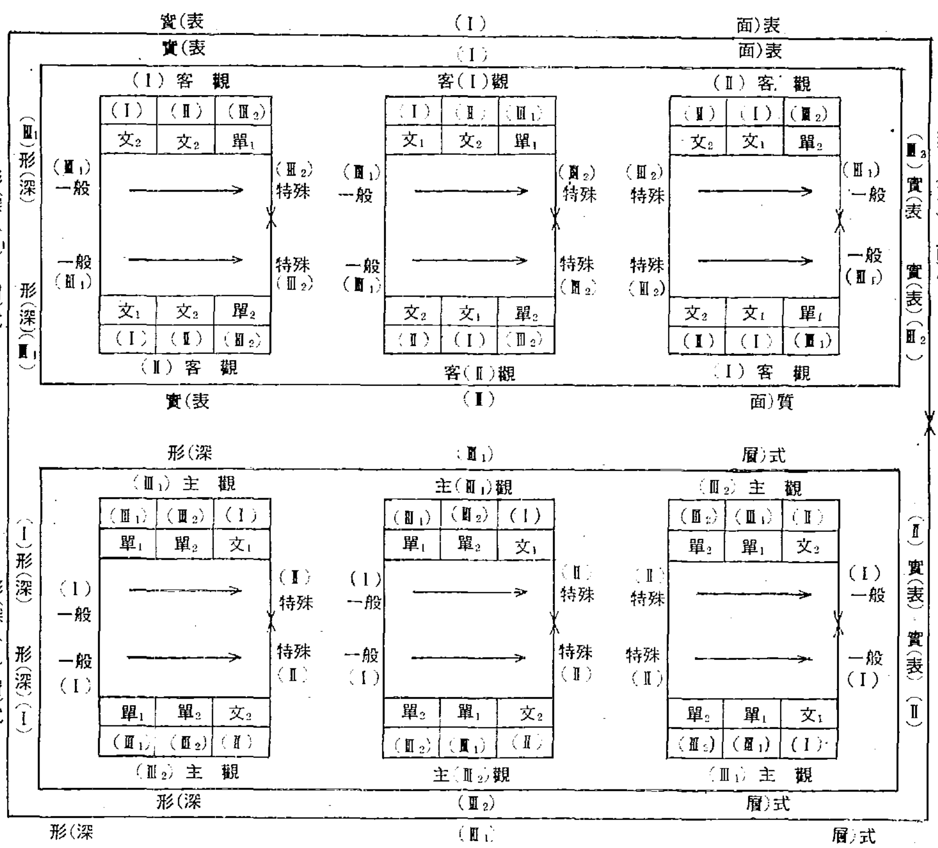
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連續體

각, “(Ⅰ)/(Ⅱ)/(Ⅲ$_1$)”…=“文章$_1$/文章$_2$/單語$_1$”…, “(Ⅲ$_1$)/(Ⅲ$_2$)/(Ⅰ)”…=“單語$_1$/單語$_2$/文章$_1$”…, 와 같이 配置(分析/分類)한다. 이는, 異方向의 경우, 의, 上位의 “一般/特殊”에 대한 下位의 “單語”, 라는 配置(分析/分類)와 대립되는 配置(分析/分類)이다;

(b) 1°/2°/3°적(구체적) 準等方向의 共存體에서, “2°”(위/아래의 양 갓의, 위:  ; 아래:  )의, 위/아래 세로에서, 위 세로에는 모두 “客觀”을, 아래 세로에는 모두 “主觀”을 配置(分析/分類)하고, 가로에는 위/아래 모두, “一般/特殊”를 “(Ⅰ)/(Ⅱ)”…=“一般/特殊”…, 와 같이, 번호 순에 따라서, 配置(分類/分析)한다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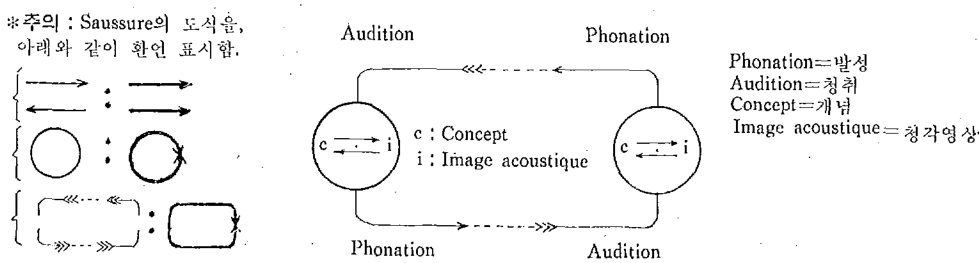
“1°”(중앙부의 위/아래의, 위: ; 아래: )는, 2°에 준하는 配置(分析/分類) 즉, 숫자 표시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, “2°”의 “客觀/主觀”; “一般/特殊”를 配置(分類/分析)한다;

c) 끝으로, (Ⅰ)/(Ⅱ)/(Ⅲ)적(추상적) **等方向의 共存體**(안의 위/아래 외곽과 밖의 외곽, 즉 : 위 (Ⅲ₁)(Ⅲ₁) (Ⅰ)(Ⅱ) (Ⅲ₂)(Ⅲ₂) 아래 (Ⅰ)(Ⅰ) (Ⅲ₁)(Ⅲ₂) (Ⅱ)(Ⅱ) ; 밖 Ⅲ₁ Ⅰ (Ⅰ)(Ⅲ₂) Ⅲ₂ Ⅱ)는, 앞의 "2°"와 "1°"에 준하여, 그 숫자 표시가 가리키는 바 대로, "形式(深層)/實質"을, "(Ⅰ) 및 (Ⅲ₁)/(Ⅱ) 및 (Ⅲ₂)"="**形式(深層)/實質(表面)**"과 같이, 配置(分類/分析)한다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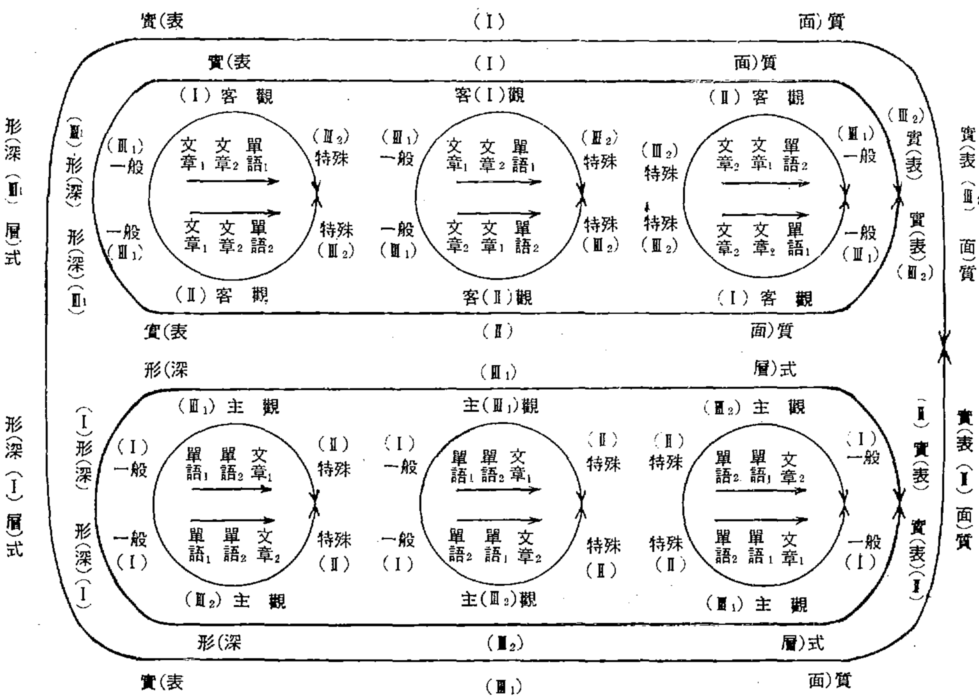


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

위 그림의 사각형(□)의 모양을 원(○)과 타원형(⬭)으로 바꾼, 異方向의 그림과 대립되는 等方向의 그림은 아래와 같다. 이 그림은, Saussure의 "말의 순환의 도식"(**Saussure, C.L.G., p.** 28)이 나타내는, **等方向(無限)적 線條적 脫二重運動**(말의 순환) **連續體**에 해당된다. 대조의 편의상, 먼저 Saussure의 그림을 제시하고, 다음에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의 그림을 제시한다 :



等方向(無限)적 線條적 脫二重運動(말의 순환) 連續體



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의 圖式

(III) 우리는 위 (I)과 (II)에서 각각, **異方向적(對角線적) 二重運動 連續體**( )와, **等方向적(非對角線적) 脫二重運動 連續體**( )의 그림을 작성하고, 그 두가지의 相反되는 그림을 **比較**하였다. 그 **比較**는, 단 한번의 有限한 統一의 共存體(連續體)로서의 **異方向의 二重運動 連續體**( )를 統一의 指導主體로 하는, 等方向적으로 여러번 無限히 반복되는 **等方向의 脫二重運動 連續體**( )와의 **比較**였다. 그 **比較**는 따라서, **共存(連續)**이라는 말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. 이 두 相反되는 二重적/**脫二重적** 共存體(連續體)의, **共存(連續)/比較**는, 적극적 관점에 설 때에는, **統一적/必然적(꼭 그래야하는) 共存(連續)/比較**라고 할 수 있고, 소극적 관점에 설 때에는, **恣意적(이래도 저래도 좋은)/非統一적 共**

存(連續)/比較라고 할 수 있다. 이 두 가지 **共存(連續)/比較**를 구별 표시하는 기호는, 적극적 관점에서의, **統一적/必然적(統一의 성격과 합치하는) 共存(連續)/比較**($\begin{smallmatrix} {}^{1}\nwarrow & \nearrow^{2} \\ {}_{2}\swarrow & \searrow_{1} \end{smallmatrix}$)와, 소극적 관점에서의, **恣意적/非統一적(統一의 성격에 위배되는) 共存(連續)/比較**($\begin{smallmatrix} {}^{1}\searrow & 3\,(1) & \swarrow^{2} \\ {}_{1}\nearrow & 3\,(2) & \nwarrow_{2} \end{smallmatrix}$)이다. 따라서, 우리는 결론적으로, **言語**의 **連續體**의 上位에 서는 **理論**의 **連續體**의 **比較작업**은, 소극적 관점에서의 非統一적/恣意적 共存(連續)/比較(${}_{2}\swarrow\!\nearrow^{2}$)를 제거하고, 적극적 관점에서의 統一적/必然적 共存(連續)/比較(${}^{1}\nwarrow\!\searrow_{1}$)를 취하는, 그러한 **比較작업**($\begin{smallmatrix} {}^{1}\nwarrow & \nearrow^{2} \\ {}_{2}\swarrow & \searrow_{1} \end{smallmatrix}$)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PAK, Hyong-Dal: Sur la comparaison des théories linguistiques.

Cet article traite d'un lien théorique qui est valable entre (1) toutes les théories formelles (profondes) caractérisées par double mouvement de l'opération mentale, donc *bi-directionnelle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nwarrow & \nearrow^2\\ {}_2\swarrow & \searrow_1\end{smallmatrix}\right)$ et (2) toutes les théories substantielle (surfaciales) caractérisées par manque de ce double action, donc *uni-directionnelle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searrow & {}^{3_1}\swarrow^2\\ {}_1\nearrow & {}^{3_2}\nwarrow_2\end{smallmatrix}\right)$, existantes en toutes linguistiques.

Prenant la suite de l'article paru dans Eoneohag en 1984, où a été faite la distinction entre grammaire symboliste et grammaire arbitraire, l'étude présentée ici interprète cette opposition non comme une opposition en tant que tel, c'est-à-dire comme une opposition non opérative, mais comme une opération de comparaison (analyse/classement) des deux types théoriques fondamentales opposés, et établit une suite des modèles métalinguistiques équivalente à une suite des modèles linguistiques.

La méthode employée ici consistera à:

(I) prendre comme point de départ opératif le modèle formel (guillaumien) et analyser ce modèle de façon à obtenir un modèle supérieur, c'est-à-dire *non-récurrent* du type *diagonal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nwarrow & \nearrow^2\\ {}_2\swarrow & \searrow_1\end{smallmatrix}\right)$ et puis (II) prendre comme point de départ opératif impliqué dans l'opération ci-dessus, le modèle substantiel (saussurien) et analyser ce modèle de façon à obtenir un modèle supérieur opposé au modèle (I) ci-dessus, c'est-à-dire *récurrent* du type *hors diagonal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searrow & {}^{3_1}\swarrow^2\\ {}_1\nearrow & {}^{3_2}\nwarrow_2\end{smallmatrix}\right)$, et enfin (III) établir un lien de comparaison (de classement) entre le modèle du type *diagonal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nwarrow & \nearrow^2\\ {}_2\swarrow & \searrow_1\end{smallmatrix}\right)$ (=du type I) et le modèle du type *hors diagonal* $\left(\begin{smallmatrix}{}^1\searrow & {}^{3_1}\swarrow^2\\ {}_1\nearrow & {}^{3_2}\nwarrow_2\end{smallmatrix}\right)$ (=du type II), qui signifiera l'opération de comparaison des deux modèles (I et II), i.e., l'opération d'*élimination* $({}_2\nearrow^2)$ du modèle (II) *en faveur du* $({}^1\searrow_1)$ modèle (I).